

클래식과 재즈의 '행복한 만남'

'클래즈 앙상블' 공연
16일 빛고을아트센터
'혁명' '리베르 탱고' 연주
'봄날은 간다' 등도 불러

드럼과 첼로, 피아노, 더블베이스로 듣는 쇼팽의 '혁명'은 열정적이었다. 특히 정통 클래식 피아노 곡으로 익숙한 '혁명'에 재즈적 색채가 더해지자 전혀 다른 느낌의 곡으로 변신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또 어떨까.

지난 봄 한희원 미술관에서 열린 '클래즈 앙상블(Clazz Ensemble)' 공연 현장은 열정과 환호가 가득했다.

클래즈 브라더스, 자크 루시에 앙상블 등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연주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4년 창단한 4인조 '클래즈 앙상블'을 통해 재즈와 클래식의 행복한 결합을 만끽할 수 있다.

최근 광주에 부쩍 재즈그룹 공연이 늘어났지만 정통 재즈, 가요, 팝송 등을 만날 수 있을 뿐 클래식과 접목된 레퍼토리는 접하기 어렵다.

클래즈 앙상블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센터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목요일 상설공연 초청 무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클래즈 앙상블은 클래식을 모토로 재즈적인 리듬과 화성을 가미해 대중에게 편하게 스며들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멤버는 대표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훈씨를 비롯해 첼리스트 김경일, 재즈피아니스트 강운숙, 메조 소프라노 진진씨 등 4명이다.

이 씨는 폴란드 쇼팽음악원, 오스트리아 하이든 주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첼리스트 김씨는 오스트리아 빈 종합예술학교 출신으로 빈 시립음대, 케른트너 주립음대에서 공부했다. 강 씨는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로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무대를 꾸준히 열었다.

클래즈 앙상블은 오스트리아 하이든 콘서트바토리아에서 수학하고 오스트리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클래즈 앙상블' 단원 진진, 이상훈, 강운숙, 김경일씨.

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을 펼치던 메조 소프라노 진진씨가 새 음반 '바람의 무늬'를 내고 음악회를 준비하며 결성됐다.

이번 공연에는 정식 멤버 이외에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김은영, 'Bill street swing band', 'Gypsy bailey' 드러머로 활동중인 정명훈, 'JS Musicians Group' 단원으로 활동중인 한은영씨가 객원 멤버로 참여,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기억 속의 외출'이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인벤션 4번 작품 775', '전주곡 6 작품 851' 알비노니 '아다지오', 쇼팽 '혁명',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정통 클래식 음악이다.

또 많은 아들에게 사랑받는 가요 '봄날은 간다', '베사타 무초'를 비롯해 안도현의 시에 최영경씨가 곡을 부친 노래로 진진씨의 음반에도 수록된 '마당밥'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진진씨의 목소리와 어우러진 피아졸라의 '나는 마리아', '라스트 카니발', 'Cs'ard'as' 등도 연주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65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막심 제키니



다비드 비스무트

광주-프랑스 '음악으로 통하다'

18일 광주극장 - 광주프랑스문화원 공동 프로그램
피아노 듀오 연주...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 감상

'음악으로 통하다'는 광주프랑스문화원과 광주극장이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하고,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함께 보는 기획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아침', '위플래쉬' 등 다양한 음악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18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으로 통하다'는 '막심 제키니 & 다비드 비스무트 피아노 듀오 연주'와 다큐멘터리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로 구성했다.

'원손 연주자'로 유명한 막심 제키니는 리옹 국립음악원과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바흐부터 라벨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을 '원손'만으로 연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다비드 비스무트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니스 음악학교 등에서 수학했으며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음반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막심의 원손 연주를 비롯해 두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세손, 네손으로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리스트의 '아델의 왈츠', 드뷔시의 '달빛', 지휘자로도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의 곡 등이다. 여기에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 삽입곡도 들려준다.

콘서트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상영되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는 에단 호크가 "평생 연기 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몇시간 만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한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삶과 음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

영화는 무대공포증에 시달리며 자신이 이룬 성공에 회의를 느낀 에단 호크가 우연히 만난 세이모어 번스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특별한 소울메이트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삶과 예술의 관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을 잔잔하게 풀어낸 영화는 '성자같은' 세이모어의 모습과 그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과 슈만의 음악 등 영화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도 인상적이다.

연주회와 영화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문의 062-527-2500,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플루트오케스트라 12일 문예회관서 연주회

정찬경·김선희씨 창조출연

광주플루트오케스트라(단장·음악총감독 김연주·사진) 제3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연주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서는 로드리게스의 '라 콤파르시타',

차치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제2곡',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작품번호 136', 파가니니의 '소나타 마단조' 등을 들려준다.

바리톤 정찬경,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창조 출연해 '청산에 살리라', '그리운 금강산' 등을 협연한다. 그밖에 윤원초등학교 플루트 앙상블과 C&J 앙상블



밴드가 '마녀배달부 키키' OST를 연주한다.

피날레곡으로는 '하얀손수건', '사랑의 트위스트' 등으로 구성된 '셰시봉 메들리'와 '트롯 메들리'가 장식한다. 문의 019-445-30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